

# 주요 야생식물의 현지외 보존 연구

(자체연구, 2016 ~ 2025)

최충호, 곽명철

## 요 약

본 연구는 야생 식물의 생물다양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자를 수집하고 증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덕산, 천마산, 설악산 등에서 확보한 야생 식물종자는 총 92종이며, 이중 희귀식물은 33종, 특산식물은 14종이었다. 주요 희귀식물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증식을 실시한 결과, 과남풀 종자의 경우 예냉 0일 GA<sub>3</sub> 800ppm 처리구에서 39.3%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다. 금강초롱꽃 종자는 예냉 60일의 경우 무처리구(5%)에 비해 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개회향 종자의 경우 예냉 80일에서 가장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봉래꼬리풀 종자는 예냉80일 GA<sub>3</sub> 800ppm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금마타리 종자는 예냉 20~80일 처리까지 17.5~35.0%의 발아율을 보여주었다. 대청부채 종자는 예냉 40일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토양 간에는 모래에 파종한 처리구가 다른 토양에 비해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산닥나무 종자의 경우 노천매장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 I. 서 론

지구상의 생물종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생존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500여 종류의 자생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신(新)성장동력 창출의 기본소재이자 자국 식량 안보의 핵심인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에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전자원 보유국의 지위인정과 생명자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로서 CBD(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의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ABS(생물유전자원 접근과